산업융합연구 제22권 제8호 pp. 105-113, 2024
ISSN 2635-8875 / e-ISSN 2672-0124
DOI : https://doi.org/10.22678/JIC.2024.22.8.105

코로나-19시대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박순진[1], 백진아[2*]
[1]웅지세무대학교 공기업경영학과 교수, [2]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Adolescent's Problem-Solving Ability on Sociality in the Covid-19 Era: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Soon-Jin Park[1], Jina Paik[2*]
[1]Professor, Dept.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Woongji Accounting & Tax College
[2]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시대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사회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웹과 모바일을 이용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령기 청소년 1,47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WIN 25.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과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청소년, 사회성,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ain the effect of adolescents' problem-solving ability on sociality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COVID-19 era. The study utilized the survey data using the web and mobile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nd selected 1,471 school-age adolescents as the subjects of the survey. For the analysis, the study performed various analysis method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self-esteem using SPSS WIN 25.0 and PROCESS MACRO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adolescents' problem-solving abil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sociality. Second,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roblem-solving ability and social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actical engagement and various programs to improve adolescents' self-esteem and sociality were suggested.

Key Words : Adolescent, Sociality, Problem-solving ability, Self-esteem,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Jina Paik(jpaik1@hanafos.com)
Received July 13, 2024
Revised July 29, 2024
Accepted August 20, 2024
Published August 28, 2024

1. 서론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지역사회 전파로 급격히 확산되었고,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팬데믹이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면 활동을 제약하는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급속히 진행되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으로 일상적인 만남이 어려워졌고, 학교 역시 원격수업을 도입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서로 고립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었다. 이 시기 동안 학교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의 기회가 박탈된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1]. 하지만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 청소년은 대면적 소통뿐만 아니라 비대면적 채널을 활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특정의 위기상황에서 실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면적 고립 상황에서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성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의미한다[1]. 사회성은 개인의 사회 적응의 정도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뜻하며, 리더십과 긍정적 태도, 의사소통능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성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2]. 특히 청소년 시기는 사회성 발달 및 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3], 생애의 전 발달과정에서 사회 적응체계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4] 이 시기의 사회성 발달은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성은 자연발생적 생성보다는 인지 노력의 산물이고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어, 개인이나 주변의 노력 여부에 따라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5].

청소년은 외부 환경적 요인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인지노력의 체계나 기회가 한정적일 경우 사회성 발달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6].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등교하기보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어려워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사회성을 이룩하지 못하면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뿐 아니라 이후 과정에서 발현될 문제행동, 심리적 위축, 대인관계 혼란, 성인기 사회적 부적응 등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에게 더 나은 사회성 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사회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문제해결 역량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문제해결능력은 청소년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이룩해야 하는 목표 상태의 차이를 분별해서 이러한 차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8,9]. 또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스스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은 학교와 학교 밖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데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의 구성요소인 의사소통과 서로 밀접한 영향관계에 놓여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Ryu[10]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타인과의 상호소통이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적용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고 특히 비대면의 상황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높으면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하에 단절과 격리 상황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 형성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또 다른 주요 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적인 가치감과 유능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중 하나가 부족하면 자신에 대한 존중감에 손상을 입게 된다[11].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의미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자기발전과 증진을 기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12-1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랑스러운 감정으로 인해 이후 긍정적인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성도 균형적으로 발달된다는 점에서 청소

년 시기에 스스로 올바른 사회성 형성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요구된다[15]. 청소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지니지만,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열등감과 패배의식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우며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청소년이 다른 사람과의 공동생활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6].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타인과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해 오프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균형 있게 잘 발달 되어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문제해결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17]. 청소년이 특정의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상황에 봉착해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문제에 당면해도 잘 처리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만족감이 높아져 자아존중감이 증진될 것이다. 이처럼 문제해결능력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독려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데 긍정적인 요소인 문제해결능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성과 문제해결능력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일상적인지 않은 비상 상황에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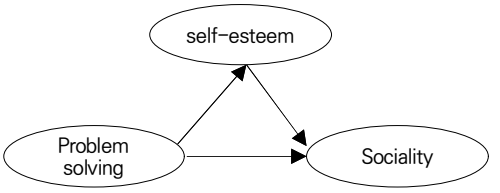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성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할 것이다.

〈가설 2-1〉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성은 높아질 것이다.

2.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코로나-19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를 위해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조사는 웹과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고(2022년 6~7월) 청소년과 성인 약 5,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2004년부터 2009년에 출생한 학생) 청소년 1,471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종속변수: 사회성

사회성 척도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성 정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성 측정 문항은 13문항으로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사교성, 자율성, 근면성, 리더십, 책임감,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등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어

떻게 변화했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가 지각하는 사회성이 좋아졌음을 의미하며, 사회성의 신뢰도(Chronbach Alpha)는 .918로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이 문제에 닥쳤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은 '내 의견이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음', '어려운 일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음', ' 뜻밖의 결과를 접해도 나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믿음',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도 나는 해결 방법을 찾아냄' 등의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제해결능력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제해결능력 척도의 신뢰도(Chronbach Alpha)는 .9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3.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코로나-19시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지표는 '나에게 만족함',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낌'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부정적 문항 5개를 역변환하여 이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가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Chronbach Alpha)는 .858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과 Hayes[18]가 고안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분석을 통해 관측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고,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값을 확인했다. 둘째,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관측변수들의 관련성을 파악하였고, 셋째,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의 영향 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적용하였다. 넷째,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의 유의성 분석을 위해 Bootstrapping을 5,000회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남학생' 709명(48.2%), '여학생' 762명(51.8%)으로 여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을 보면, '중학생' 752(51.1%), '고등학생' 719명(48.9%)이고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36명(16.0%), '경기/인천' 486명(33.0%), '강원/충청' 212명(14.4%), '경상' 360명(24.4%), '전라/제주' 177명(12.1%)으로 나타났다.

부 학력은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이 736명(50.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4명(20.0%),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이 139명(9.5%)을 보이고 있으며, 부 학력을 '잘 모르겠음'에 응답한 경우도 281명(19.1%)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은 '대학 졸업(전문대 졸업 포함)'이 754명(51.2%)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포함)'도 103명(7.0%)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여성의 학력 신장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329명(22.4%)으로 나타났으며, 모 학력을 '잘 모르겠음'에 응답한 경우도 262명(17.8%)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 형편을 묻는 문항에서는 740명(50.3%)이 '잘 산다'고 응답해 자기 가정의 경제 상황을 비교적 양호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02명(40.9%), '못 산다'고 응답한 비율이 128명(8.7%)을 보이고 있다.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에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16명(21.5%), '건강한 편이다'고 응답한 경우는 725명(49.3%)을 차지하여 대다수의 청소년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관적인 학업성적은 '중간' 586명(39.8%), '잘하는 수준' 374명(25.4%), '못하는 수준' 240명(16.3%), '매우 잘하는 수준' 204명(13.9%), '매우 못하는 수준' 67명(4.6%) 순으로 나타나 자신의 성적이 잘하는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71)

Variable	Section	n	%
Gender	Men	709	48.2
	Women	762	51.8
Education	Middle school	752	51.1
	High school	719	48.9
Area	Seoul	236	16.0
	Gyeonggi/Incheon	485	33.0
	Gangwon/Chungcheong	212	14.4
	Gyeongsang	360	24.4
	Jeolla/Jeju	177	12.1
Fa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294	20.0
	University(Including college)	736	50.0
	Graduate school	139	9.5
	Don't know	281	19.1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329	22.4
	University(Including college)	754	51.2
	Graduate school	103	7.0
	Don't know	262	17.8
Income	Hard	128	8.7
	Normal	602	40.9
	Good	740	50.3
Physical Condition	Healthy side	725	49.3
	Very healthy	316	21.5
Subjective Academic Achievment	Very bad	67	4.6
	Bad	240	16.3
	Middle	586	39.8
	Good	374	25.4
	Very good	204	13.9

3.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 자아존중감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분석에 앞서 정규성이 가정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술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문제해결능력의 평균값은 3.002, 표준편차는 .541,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2.786, 표준편차는 .579, 사회성의 평균값은 3.255 표준편차는 .652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의 왜도 및 첨도는 절대값 기준치 2와 4를 각각 넘지 않아 정규성이 가정되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Skew	Kurt
X	3.002	.541	-.170	.362
M	2.786	.579	.198	-.172
Y	3.255	.652	.614	.760

X=Problem-solving ability, M= Self-esteem, Y=Sociality

3.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계수를 통한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성은 문제해결능력(r=.322, p<.01), 자아존중감(r=.209,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은 자아존중감(r=.512,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모든 변수 간 상관계수는 .209~.512로 .70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X	M	Y
X	1		
M	.512**	1	
Y	.322**	.209**	1

X=Problem-solving ability, M=Self-esteem, Y=sociality
**p<.01

3.3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관계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 간의 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odel Number 4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Model 1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의 직접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 .570, Standard Coeff= .529, p<.001).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LLCI= .523~ULCI= .616)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Model 1의 모형적합도는 F= 570.497, p<.001, 설명력은 28.0%로 나타나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Model 2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이 함께 투입되어 사회성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 .338, Standard Coeff= .285, p<.001).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LLCI= .270~ULCI= .406)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 .079, Standard Coeff= .072, p<.05).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LLCI= .016~ULCI= .142)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Model 2의 모형적합도는 F= 88.498, p<.001, 설명력은 10.8%로 나타나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Model 3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의 직접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 .383, Standard Coeff= .322, p<.001).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LLCI= .325~ULCI= .44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Model 3의 모형적합도는 F= 170.341, p<.001, 설명력은 10.4%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청소년일 경우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성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4. Mediated Effect

Path		Coeff	Standard Coeff	95% C.I. LLCI~ULCI	F / R^2
Model 1	X→M	.570	.529***	.523~.616	570.497 / .280
Model 2	X→Y	.338	.285***	.270~.406	88.498 / .108
	M→Y	.079*	.072*	.016~.142	
Model 3	X→Y	.383	.322***	.325~.441	170.341 / .104

X=Poblem-solving ability, M=Self-esteem, Y=Sociality
*p<.05, ***p<.001

3.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앞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5,000회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총효과는 Effect= .383, Boot S.E.= .029, t= 13.052(Boot LLCI= .325~ULCI= .441)로 나타났으며,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에 직접효과 Effect= .338, Boot S.E.= .035, t= 9.793(Boot LLCI= .270~ULCI= .40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는 Effect= .045, Boot S.E.= .020(Boot LLCI= .007, Boot ULCI= .087)로 나타났으며,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Table 5. Bootstrapping

Path	Effect	Boot S.E	t	95% C.I. Boot LLCI~ULCI
Total Effect	.383	.029	13.052***	.325~.441
Direct Effect	.338	.035	9.793***	.270~.406
Indirect Effect	.045	.020	-	.007~.087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의 노력과 대처를 통해 극복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타인과의 관계형성이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리더십과 책임감도 향상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성에 관한 분석에서 문제해결능력은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19]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면 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져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자신의 요구 충족을 위한 환경 적응 및 변화의 과정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성이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됐다.

둘째, 문제해결능력은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문제해결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쉽게 제압되거나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밝힌 선행연구[20]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이 예측되었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의 영향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나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지표인 의사소통능력과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21]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을 구성하는 지도성과 신뢰성, 자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한 Kweon[16]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사회성에 영향을 미쳐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만남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실천적 개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사회적 교류가 제한된 상황을 경험한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여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별 방탈출프로그램처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조원들끼리 탈출계획을 세워 협력해서 해결하게 되면 사회성의 지표인 협동심이 길러질 것이다. 또한, 갈등 상황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긴장과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대처 방법을 찾고 서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시연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미로를 통과하는 프로그램이나 조별 퍼즐 맞추기, 야간에 지도만 주고 집결 장소에서 만나는 담력 훈련프로그램 등도 효과적인 개입 방식으로 추천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처럼 타인과의 만남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적은 인원이 만나 퍼즐을 맞추며 협동심을 기르고 야외에서 담력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조절 능력과 근면성 및 사교성이 길러져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은 고립된 현실에서 청소년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감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분노조절프로그램과 영화를 보고 영화 속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매체나 특히 Zoom 회의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리더십과 자기 표현력 및 주장성 증진을 위해 웅변이나 일일 반장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나아가 책임감과 준법성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사회기술 훈련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서 각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사회기술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보내는 정규적인 감사 편지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매일 감사의 마음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NS나 인터넷 환경에서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사용 방법에 대한 에티켓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튜브나 방송매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실제 온라인매체에서 청소년들이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지역사회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며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을 위한 성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도 요구된다.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점과 이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집중하여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이후 사회성의 변화를 종단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논의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문제해결능력이나 자아존중감, 사회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그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화의 궤적을 통해 보다 풍성한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조사한 2차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사회성을 설명하는 변수 선정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문제해결능력이나 자아존중감 같은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가족요인 혹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변수 선정을 통해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설문을 통한 양적 분석은 객관적인 현황 파악에는 적합하나 인간의 보다 다양한 내적 상태나 태도, 심리

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정의 변화나 흐름 등의 미묘한 차이를 간파할 수 있는 대상자와의 보다 심도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분리하지 않고 청소년 위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회성 발달과 인격 형성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분리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성 발달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처럼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각 개인이 서로 고립되는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관계 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리더십이나 책임감, 의사소통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성의 발달이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책임감이나 대인관계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요인임을 밝힘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REFERENCES

[1] S. Y. Kim (2023). Social Development of Teenage Generation Z Youth and COVID-19 a Statement of Discussion about the Presentat on. *Spring Conference in the Field of Life, 2023(6):* 120-120.

[2] T. J. Kim & M. R. Lee. (2017). The Effect of Adolescent's Voluntary Activity Participation on Socialit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6(1):* 35-54.
DOI : 10.20497/jwce.2017.6.1.35

[3] L. Cole (1959). *Psychology of Adolescence.* N.Y.: Holt Reinehart & Winston.

[4] S. N. Lee (1979). *A Map of Personality and Behavior.* Seoul: Central Integrity Publishing Department.

[5] R. G. Orwin (1983). A Fail-safe N for Effect Size in Meta-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8(2):* 157-159.

[6] Y. M. Jo & D. Y. Lee (2016).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Increasing Sociality of Art Therapy Progra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3(2):* 135-162.
UCI : I410-ECN-0102-2022-300-000531545

[7] A. Beelmann., U. Pfingsten & F. Lösel (12010). Effect of Training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A Meta-analysis of Evaluation Studi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3):* 260-271.
DOI : 10.1207/s15374424jccp2303_4

[8] J. H. Woo & J. H. Song.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8(4):* 101-110.
DOI : 10.22678/JIC.2020.18.4.101

[9] S. J. Lee & Y. K. Chang (2003). *(A)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0] J. Y. Kim & H. S. Ryu (2022). Effect of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2(5):* 83-91.
DOI : 10.22156/CS4SMB. 2022.12.05.083

[11] N. Branden (1992). *The Power of Self-estee.* Seoul, Hakjisa.

[12] S. R. Shin (2005).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Body Cathexis on the Acceptance of Fashion Trend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3(2):* 280-288.
UCI I410-ECN-0102-2009-590-001785190

[13] J. S. Yoo (2021). The Effects of Self-esteem, Career Decision Making Effica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Airline Service Department's Students. *Journal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33(5):* 271-291.
DOI : 10.31336/JTLR.2021.5.33.5.271

[14] M. Rosenberg (1986). Self 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J. Suls and Greenwald(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3).* Hiisdale, N. J.: Eribaum

[15] C. J. Kim. (2020). The Effects of Juvenile

Delinquents' Self-esteem on Their Sociality. *Kwangshin Argument, 27:* 259-274.
UCI : I410-ECN-0101-2019-000-001014574

[16] S. O. Kweon. (2017). The Effects of Juvenile Delinquents' Self-esteem on their Socialit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2(1):* 107-113.
DOI : 10.9708/jksci.2017.22.01.107

[17] M. T. Greenberg., J. M. Siegel & C. J. Leitch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DOI : 10.1007/BF02088721

[18] A. F. Hayes.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51(3):* 335-337.
DOI : 10.1111/jedm.12050

[19] H. O. Woo & M. Y. Kim (2023). Impact of Problem Solving Ability on Self Leadership: Mediating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5:* 27-41.
DOI : 10.22143/HSS21.15.3

[20] J. M. Yak & K. J. Hong (2005). Solution-focused Brief Counseling that Effects on Problem-solving Capacity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7(2):* 121-141.
UCI : I410-ECN-0102-2009-330-001582757

[21] Y. J. Kim (2022). Influence of Self-esteem, Perception of Communication Importance,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Problem Solving Skill on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6(7):* 237-249.
DOI : 10.21184/jkeia.2022.10.16.7.237

박순진(Soon-Jin Park) [정회원]

- 2016년 2월 : 한세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상담학 석사)
- 2021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2022년 4월~2023년 3월 : 웅지세무대학교 부총장
- 2023년 3월~현재 : 웅지세무대학교 공기업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가족상담/복지
- E-Mail : sj5114@hanmail.net

백진아(Jina Paik) [정회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사회학박사)
- 2006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 E-Mail : jpaik1@hanafos.com